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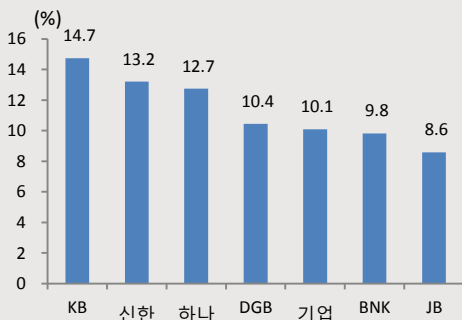
Overweight
(Maintain)

은행/보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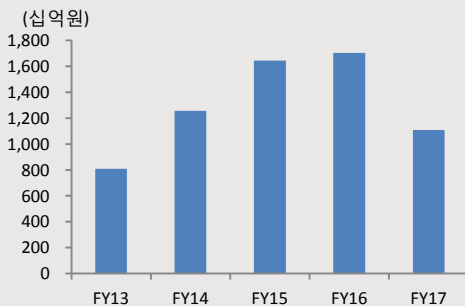
Analyst 김태현

02) 3787-4904/thkim@kiwoom.com

은행 자본비율 현황



증권사 IB영업이익 추이



주: 은행 자본비율 현황은 3Q17기준, 기업은행 제외 지주사 기준, 증권사 IB영업이익 중 FY17은 2Q17누적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월 19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산업이슈

금융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 자본이 성장성 결정할 전망



21일 금융위는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계, 부동산 대출 위주의 성장을 제한하고 기업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이 성장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자본비율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은행 성장에서 자본 중요성은 점증할 전망입니다. 증권사의 기업금융도 기존 부동산 PF구조화 위주에서 인수금융, 중소기업 투자 부분으로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위,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 발표

금융위는 전일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3대 추진 과제로 1)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 억제, 2) 편중리스크 제어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 및 영업규제 도입과 3) 기업금융 활성화 인센티브 강구를 제시했다. 은행, 금융투자, 중소기업, 보험 등 업권별로 세부과제를 구체화했다. 핵심은 가계, 부동산 대출 위주의 성장을 제한하고 기업금융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 은행: 자본비율이 성장 결정할 것

금번 방안에서 은행 관련 주요 규제는 1) 예대율 산정체계 개선, 2) 고위험 주담대 추가 자본규제와 3)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이다.

예대율 산정체계 개선은 가계와 기업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것으로 시행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고위험 주담대 추가 자본규제는 BIS 비율 산출 시 고LTV(60%초과)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상향하는 안이다.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 자본 도입은 자본비율 산출 시 은행의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금융위가 결정한 적립비율(0~2.5%)을 추가 적립하는 안이다.

이미 은행들의 대출 성장 목표가 GDP성장을 정도로 높지 않고, 전략도 주택 담보대출에서 기업대출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금번 대책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금융당국이 성장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자본비율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자본비율이 은행의 성장성을 결정할 전망이다.

>>> 증권사: 기업금융의 다변화 예상

증권사의 기업금융은 다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에 부동산 PF 구조화 위주에서 인수금융 및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부분으로 기업금융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 및 부동산 펀드에 대한 자본 부담을 강화하는 반면 중소특화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코스닥 주식 위험가중치 하향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증권사의 Risk Taking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금융업권별 세부과제(요약) 〉

	가계·부동산 부문 리스크 관리 강화	편중리스크 제어·관리	기업금융 인센티브 활성화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대율 산정개선 ▶고위험 주담대 추가자본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부문 CCyB 도입 ▶리스크관리실태 평가(필라2)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조정기업 건전성분류 합리화 ▶중소기업 신용대출 인센티브 등
금융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관련 대출 건전성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정비·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기특화 증권사 투융자 부담 완화 ▶코스닥 주식 위험가중치 하향
중소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 주담대 추가 자본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금융 집단대출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금융 기업대출 총당금 완화 ▶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합리화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주담대 추가 자본규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상환능력에 맞춰 위험도 차등

(자료: 키움증권, 금융위원회, 언론보도)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주가 상승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20% 주가 상승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10% 주가 변동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20% 주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주가 하락 예상

업종	적용기준(6개월)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10%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17/01/01~2017/12/31)

투자등급	건수	비율(%)
매수	159	95.21%
중립	7	4.19%
매도	1	0.60%